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5일 월요일 음 4월 24일 (1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21°C, 낮 최고 기온은 24-26°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next 5 days.

Table with sunrise/sunset, moonrise/moonset, and high/low tide times for Jeju.

Table with daily and 5-day weather forecasts for Jeju.

Table with food safety and disaster preparedness information.

월드뉴스

'청소 선행' 스포츠카·장학금 받은 흑인소년

시 건물관리직 제안도 받아

미국 뉴욕주(州)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한 시위가 끝난 거리를 밤새 묵묵히 청소한 10대 흑인 고등학생이 지역사회의 선물 세례에 이어 일자리카지 인게 됐다.



안토니오 그윈 주니어(왼쪽).

나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윈의 선행은 지난 1일 시위로 인해 더러워진 거리를 치우러 나왔다가 이미 거리가 깨끗해져 있는 것을 본 주민들에 의해 알려졌다.

이에 한 주민은 그윈에게 자신이 소유한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스포츠카를 선물했고, 그윈이 울 거울 입학할 예정인 버팔로 메디칼대는 전액 장학금을 약속했다.

그윈은 자신의 청소 회사를 세우기 위해 메디칼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백록담



백금탁 정치부장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최근 행보가 4·15총선 이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모 일간지의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100명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후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야권후보자 1순위(12%)로 지목되면서 더욱 가열하다.

원 지사의 행보, '부메랑' 될 수 있다

역전드라마를 쓰고 싶다"라고 했다. 2년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며 그가 남긴 말이다.

그리고 한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위기 극복과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제주도정 수행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근 행보는 그의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다. 도정 운영을 뒤로 한 채 이틀이 멀다 하고 지사는 '졸장 중'이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도정 운영에 전념해야지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앞선다.

대권 도전과 맞물린 행정시장 내정 뒤에 숨겨진 원 지사의 의중도 궁금하다. 2선 도지사로서 이번이 중앙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는 것 같다.

제주도정의 수장으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다른 지역에 견주어 낫다. 최근 갑론을박 중인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고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건의한 것도 이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제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를 심어줘야 제주관광은 물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우리나라의 정권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최근 중앙정치 행보와 음주운전으로 법을 위반한 선거 공신을 행정시장으로 내정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들이다.

열린마당

수돗물 부정급수 위법행위 NO



김영철 서귀포시 상수도과장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 누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급수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분기하거나 급수중지 상태에서 미등록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무단 연결해 사용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는 미등록계량기를 사용해 10여 년간 조정수 등에 부정급수를 해온 농가를 적발해 사용량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계획적으로 장기간 도수(盜水)해 온 농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부정급수는 개인의 가벼운 부정행위가 아닌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상대적

청렴실천 나부터 시작한다



오원영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군무를 하다보면 종종 주민센터에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할머니가 계셨다.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셨다.

노인일자리 신청접수가 시작되니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시길 안내드렸다. 하지만 어르신이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몸이 불편하고, 버스나 택시를 타는 방법을 몰라 접수처까지 갈 수 없다고 안타까워 하셨다.

어르신은 접수처에 모셔다 드리기로 하고, 차에 올랐는데 옆 좌석에서 어르신이 가방을 뒤지시더니 5만원 지폐를 꺼내서 주시려고 하셨다.

황을 완곡하게 말씀드리며 거절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 자식 같아서 주는 용돈이라고 했지만, 지역의 주민으로서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 고맙다는 마음을 받았던 뿌듯함 보다는 속상한 감정이 앞섰다.

지금은 어르신께서 건강이 더욱 악화돼 노인일 자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그 때 만약 그 돈을 건네받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을 마음속에 두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 정말로 후회했을 것이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이라고 한다. 우리는 매순간 청렴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임하고 있지만, 달콤한 유혹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매순간 나를 되돌아보며 청렴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나부터 일상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해 간다면, 부정부패 없는 '청렴 제주'가 자신 있게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WIDEX hearing aid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

Grand Hearing Aid advertisement featuring a doctor and promotional offers.

Jeju City Government notice regarding public works and administrative matters.